

## 신(新)북방정책에 따른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본격화

- 북방경제협력의 현실화로 인프라, 에너지, 교통·물류, ICT, 조선업, 수산 등 한-러 경제협력 방안이 본격화될 전망
-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출범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역할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

- 지난 '17년 9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 이후 KT,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포스코대우, 현대중합상사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잇달아 극동 러시아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양상
- 국내 조선업계도 위기 탈출을 위한 움직임으로 최근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국영 극동조선소(FESRC) 신하 즈베즈다 조선소 설립을 위한 MOU를 맺고 북극 서틀 유조선 건조 기술 지원 계약 체결. 현대삼호중공업은 '17년 6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즈베즈다-현대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설계와 구매·인력·교육 등 제반 서비스 제공 내용이 담긴 기술지원협약 체결
-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러시아로부터 쇄빙LNG선 15척을 모두 48억달러 (약 5조 4천억 원)에 수주하여 최근 그 중 하나인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 쇄빙LNG선을 건조한 바 있음
- 한편, 현대상선도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 따라 부산항-러시아 북동부 캄차카반도-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을 거치는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2020년 시험운항에 나서는 방안 검토 중

기업	사업 내용
삼성중공업	러시아 국영 극동 즈베즈다 조선소 설립 MOU
현대삼호중공업	러시아 국영 극동 즈베즈다와 합작회사 설립 선박 건조 제반 서비스 교류
포스코대우	극동투자수출지원청과 자원 개발·식량·산림·수산업 발굴 위한 MOU
현대중합상사	40MW급 태양관 디젤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추진 (LOI)
KT	러시아 극동투자청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추진 MOU

표 1. 신북방정책에 따른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국내 기업 (참고: 자료1)

자료 1 : 매일경제증권 ('17.09.21.)

자료 2 : Business Post ('17.09.21.)

자료 3 : Newsis ('17.09.19.)

## 미국, 쇄빙선 건조 및 미사일 방어망 강화 포함한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

- 미국 알래스카 주에 지상 요격기 추가 배치로 북극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전망

- '17년 9월 18일 미 상원이 통과시킨 '2018 국방수권법안에 최대 6척의 쇄빙선 건조 및 미국 본토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 약 7천억 달러 (약 790조 8천억 원) 규모의 국방예산 중 85억 달러 (약 9조 6천억 원)는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말까지 지상 요격기 44대를 배치하는 계획에 추가적으로 28대를 배치하도록 함. 이 중 20대는 알래스카 주 포트그릴리 기지에 배치될 예정
- 또한 해안 경비대가 최대 6개의 쇄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개당 10억 달러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쇄빙선 자금 마련 기대. 현재 미군은 2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척은 노후화로 인해 운영 불가함

자료 4 : Alaska Dispatch News ('17.09.19.)

## 중국 쇄빙선 설롱호, 8일만에 북서항로 개척

-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서항로의 빙하가 얇고 넓게 변형되면서 북서항로를 통한 국제 상업용 항행이 곧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
- 중국이 극지 주도권 확보를 위한 북극항로 개척 및 극지관련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중국과 함께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국이 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향후 조치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됨

- '17년 8월 30일 그린란드를 출발한 중국 쇄빙연구선 설롱호는 불과 8일 만인 9월 6일에 보퍼트해를 도착하여 총 2293해리(4,247km)의 캐나다 북극 지역 북서항로를 최단 시간 내 횡단함으로써 새로운 북서항로 개척에 성공
- 앞서, 핀란드 쇄빙선 MSV 노르다카가 '17년 7월 5일 캐나다 밴쿠버를 출발, 7월 29일 그린란드 누크에 도착해 24일 만에 북서항로를 횡단하여 세계 최단 기록을 세운 바 있으나, 이번 중국의 탐사로 이를 3분의 1로 단축시킴
- 앞서, 중국 설롱호는 '17년 7월 20일 중국 제8차 북극 과학탐사대 대원 96명이 탑승한 가운데 북극 과학탐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하이 중국극지 고찰국내기지부두에서 출항하여 베링해, 추크치해, 북극 북서항로와 고위도 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 한편, 캐나다는 이번 탐사가 과학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캐나다 북극 전문가인 로버트 휴버트(Rob Huebert)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설롱호의 항행을 두고서 중국이 북극해를 가로질러 북미 및 유럽으로 통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교역로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대량의 운송량 증가를 예상한 중국이 서양 해운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돌입한 것이 명백하다고 분석
- 상당한 환경 문제와 지역의 영토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극 노선을 통해 대규모 선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추후 북서항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



그림 1. 중국 설롱호의 북서항로 횡단 루트 (자료: University of Breme-Polar View)

자료 5 : The Washington Post ('17.09.13.)

자료 6 : 글로벌이코노믹 ('17.09.16.)